지역 **메 아 리**

고창군, 농민수당 지급관련 추진협의회 구성 위원 위촉

농민수당에 대한 지역 농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군수 유기 상)이 농민수당 지급관련 추진위원회를 구 성하고 지급안 마련에 들어갔다.

유기상 고청군수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 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마을 공동체 보존을 위 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민선 7기 공약으로 제시하 바 있다.

23일 군청 회의실에서는 행정과 의회 그리고 관내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농민수당 추진협의회'위원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가 열렸다.

농민수당 추진협의회는 명칭,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지급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안 을 미련할 계획이다.

유기상 군수는 "추진위원회와 함께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고창군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 다"며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리는 한국농 업의 혁신을 고창군에서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위한 최종보고회 가져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3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2019년~2022년) 정 읍시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최종보고회 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김인태 부시장의 주재로 정읍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TF팀, 관계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구용역을 맡은 (사)전북정책발전연구원 김혜진 연구원의 보고로 회의는 시작됐다. 김 연구원은 지난 5~7월에 실시한 주민 복지욕구조사와 지원조사 결과를 분석・보고하고 계획의 기본 방향과 세부사업 내용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보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난 9월에 가졌던 중간보고회에서 조율된 조정사항에 대한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사업과계획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에 한정했던 기존 3기 계획과 달리 이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문화・교통・주거・교육・보건・환경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욕구조사와 지역자원현황, 국정과제, 상위계획, 시정방침, 초점집단면접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점 추진사업을 만들고 이를 구체화 할 세부사업을 담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업생명 식품산업 메카조성 박차

고창군-식품전문기업 태송 복분자 농공단지 투자협약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복분지능공 단지에 냉동 볶음밥 등을 생산하는 식품전문기업 (주)태송과 투자협약 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회의장과 (유대송 이문화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태송은 복분자농공(특화)단지 20,628㎡부지 에 33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 10 월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주태송은 2015년에 설립된 회사로 볶음밥, 영앙밥, 만두, 나물밥 등 다 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식품전문 기업으로 2016년 HACCP(해썹・즉석조리식품, 곡류가공식품) 식품안전관리인증을 획득하여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다수 국민이 즐기는 일상식품의



고창군이 복분자농공단지에 냉동 볶음밥 등을 생산하는 식품전문기업 (주)태송 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안정성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국내 최고의 냉동 식품 기업 이라는 비전 이래 노사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고창군에 투자 한 것을 축하드리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기업 관계지들 과 늘 소통하며 어려운 점을 경청하고, 함께 노력해 해결하겠다"며 "앞 으로도 고창군은 농업생명 식품산업을 최우선으로 살려 대한민국 건강 밥상을 책임질 수 있는 식품산업의 메카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어르신들의 문화잔치! 정읍북부실버종합대축제 개막

내일까지 북부노인복지관 광장서··· 전시 · 체험 · 공연 · 먹거리 등 다채

제9회 정읍시북부실버종합대축 제가 2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 일까지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관장 유두희) 광장에서 성대하 게 열린다.

북부실버종합대축제(추진위원 장 정이랑)는 어르신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정읍시 북부 지역의 대표 실버축제로 올해 9 회째를 맞았다.

이날 개막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 기관단체 장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어르신과 시민 700여명이 참석하 여 축제를 즐겼다.

이날 기념식에는 풍물 길놀이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정이랑 추진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김기홍 어르신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유진섭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잔치인 제9회 정읍시북부실버종합 대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그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뽐내시어 건강하고 당당한 어르신들의 열정을 보여 어르신들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



제9회 정읍시북부실버종합대축제가 2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정읍 시북부노인복지관 광장에서 열린다.

행사의 큰 뜻이 있다"고 격려했다. 올해 9회를 맞는 행사는 23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25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행사는 전시 마당, 체험마당, 공연마당, 먹거리 마당 등 4개 마당으로 진행되며 부대행사로는 경품 추천 등이 있다. 전시마당에는 어르신들이 정성들여 가꾼 국화와 자생화 등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체험마당에서는 연날리기, 투호던지기, 짚공예만들기, 제기차기, 수지침

등의 전통놀이 등이 실시된다. 축제 기간 중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점심식사와 주류, 안주류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실버가요제와 외부 공연 등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어르신들의 축제에 흥을 더할 예정이다. 유두희 관장은 "이번 축제기간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의회, 심도있는 군정 질문 빛났다

각종 중요 현안에 대한 송곳 질문 · 대안 제시 '눈길'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가 지난 22일 제8대 부안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군의원들은 총 51건의 군정질 문을 통해 군정주요업무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기본 기능인 통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는 편이다.

이번 군정질문은 전반적으로 행정수 행 상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대 안을 제시하는데 비중을 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원별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장은 아 의원 '농민수당제 신설 검토' ▲이태근 의원 '부안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이강세 의원 '부안버스터미널 주변 건축물에 대한정비' ▲오장환 의원 '임대농기계 택

배 배달 서비스 도입' ▲김연식 '잘 못된 전보 인사 사례 언급 및 재발방지' ▲김광수 의원 '고창군과의 위도 이남 해역 관할권 분쟁에 대한 향후 계획' ▲문찬기 의원 '2023세계잼버리 대회 개최와 연계한 부안군 장기발전 계획' ▲김정기 의원 '화장장이용료 지원 등 민선7기 어르신복지에 대한 정책 방향' ▲이용님 의원반복되는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저류지 시설 확대'등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이한수 의장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소리를 함께 듣고 집행부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가 23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정읍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위한 첫걸음 떼

지역주민 · 전문가 의견 수렴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3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업제안형)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수성, 연지동 일원)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 한 첫걸음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 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이날 공청회는 원도심 지역인 수성, 연지동 일원에 대한 그동안의 사업추 진 경과와 사업계획구상(안), 향후 추 진계획에 대한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 고,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과 지난 10월 19일 에 청취한 정읍시의회 의견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11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 할 예정이다.

선도지역 지정 후에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 청취,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도 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도시재생위 원회의 심의를 받아 내년도 상반기에 활성화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 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모든 과정에 시민의 적극적 인 참여와 아이디어 공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적극 적으로 수렴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에 반영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 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